

보성군, 소 브루셀라병 일제검사 실시



보성군은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지정된 인수공통전염병인 소 브루셀라병 근절을 위한 일제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일제검사로 감염 소 조기 색출 및 질병 확산 방지를 통해 소 브루셀라병 청정화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검사는 6월 8일부터 7월 3일까지 4주간 진행되며, 1천여 농가의 거세우를 제외한 12개 월령 이상 한·육우 1만 5천여 마리가 대상이다.

보성군은 효율적인 검사를 추진하기 위해 공수의사를 포함한 10명의 제철요원을 읍·면별로 지정

오늘부터 내달 3일까지 4주간 진행
1천여 농가 1만5천여 마리 검사 대상

하였으며, 특히 최단 시간에 검사 결과를 농가에 알려주기 위해 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소 브루셀라병은 세균에 의해 감염되어 유산을 일으키는 가축전염병으로 주로 교미와 출산을 통해 감염된다. 또한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하며, 재발률이 높아 치료를 권장되지 않고 대부분은 살처분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군은 검사 결과 소 브루셀라병 양성 반응 발생농장의 소는 즉시 이동제한 조치를 실시하고, 6개월에서 12개월 동안 검사 결과를 확대할 예정이다.

더불어 양성축에 대한 살처분과 농장 및 조사 소독으로 확산을 최소화하고 농장 내 전체 소가 음성으로 확인될 때까지 재검사를 실시하여 질병전파 가능성을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소 브루셀라병은 생식기를 통해 전염되는 질병으로 근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축산농가 스스로 방역을 철저히 해야 하며 특히, 번식을 위한 인공수정 및 농장관계자 축산 차량의 출입시에도 철두철미한 소독이 필요하다.”며 축산농가의 방역의식 고취를 당부했다.

보성=김덕순 기자



여수시 “녹색전환 새로운 미래를 열다”

제25회 환경의 날 기념행사...COP28 유치 기원 퍼포먼스도

여수시는 지난 4일 오후 2시 시청 회의실에서 제25회 환경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녹색전환, 새로운 미래를 열다”라는 주제로 여수시가 주최하고, 여수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주관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환경단체 회원과 시민 60여 명 등 최소한의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간소하게 치러졌다.

기념행사는 환경보전 유공자에 대한 표창과 기념사, 제28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유치를 기원하는 퍼포먼스 등으로 진행됐다.

권오봉 시장은 기념사에서 “코로나19로 행사가 축소되어 아쉽다”며 “우리 여수는 박람회 정신

을 계승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시민 모두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저탄소생활을 실천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5일은 부대행사로 대대적인 청결활동도 진행했다.

해양환경인명구조단 여수구조대 주관으로 대인 7명이 투입돼 산단 우순도 일대 수중 속에 방치된 해양쓰레기를 수거했다.

또한 여수시·여수산단공동발전협의회 주관으로 55개 행정기관, 기업체·단체 등 350여 명이 참여해 여수산단 해안가를 4개 구간으로 나눠 청결활동을 실시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순천시, 전국 1호 ‘개방형직위 낙안면장 사직 따른 입장’ 발표

순천시는 전국 1호 개방형 민간인 면장으로 관심을 모았던 신길호 낙안면장의 사직에 따른 입장을 밝혔다.

시는 지난 5월 27일 자로 사의를 표명한 신길호 면장에 대해 공무원 의원 면직 제한사유 확인 등 행정절차를 거쳐 오는 6월 30일자로 사직 처리할 예정이다.

낙안면민들이 면장을 직접 선출하는 직접민주주의의 실효과정을 거쳐 임용된 신길호 낙안면장은 2019년 1월 2일자로 임기를 시작해 1년 5개월 동안 낙안면민의 복리증진과 낙안면의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면장 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면민들 간 사소한 의견 차이가 주민들 사이의 갈등으로 확산되어 원활한 면정추진이 어려워졌고, 이런 일련의 상황이 시정에 부담을 주고 낙안면민 화합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판단해 신길호 면장이 사직을 결심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순천시는 “낙안면을 위한 신길호 면장의 의사를 존중하겠다”며 “공석으로 남게 되는 낙안면장 직위는 당분간 민간인 면장을 임용하지 않고 내부공무원을 배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동부취재본부 김택영 기자

순천시, 인구정책 시민참여단 워크숍 개최

순천시는 최근 인구정책 시민참여 확산을 위한 ‘인구정책 시민참여단’ 워크숍을 개최했다.

공모과정을 거쳐 각계각층의 시민 50명으로 구성된 순천시 인구정책 시민참여단은 이번 워크숍에서 2020년 순천시 주요 인구정책 사업을 공유한다. 따라서 아동, 여

성, 청년, 중장년 분과별 토의활동을 통해 앞으로 활동할 과제의 세부실행방안을 수립했다.

시민참여단은 임기기간인 2020년 12월까지 활동과제를 추진하고 순천시에서는 시민참여단의 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광양소방서 소방전술훈련 평가 실시

119안전센터·119구조대 직원 138명 대상

광양소방서(서장 송태현)는 최근 이틀간 광양실내체육관에서 119안전센터와 119구조대 직원 138명을 대상으로 상반기 소방전술훈련 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각종 재난상황에 맞는 적극적인 현장대응체계 구축과 재난 현장에 강한 소방관 양성을 목표로 소방전술 능력을 점검하고 평가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방서는 공기호흡기 장착·비상호흡법, 기구 묶기, 요구조

자 2인검색 및 운반법 등 현장활동 표준기법에 대한 정확성과 숙지여부를 집중 평가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평가는 재난 현장에서 강한 소방관을 양성하고 다양한 재난 현장에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교육·훈련을 강화하여 현장에 강한 소방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코로나19로 위축된 청소년 활동 활짝

고흥군, 청소년 동아리 11개팀 선정...1500만원 지원

고흥군은 올해 신규 시책인 청소년 동아리 활동사업으로 관내 11개 청소년 동아리에 1,500만 원을 지원한다.

‘청소년 동아리 활동사업’으로 관내 청소년 동아리가 참여 신청하여 음악·무용·미술·과학·자원봉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학교 소속 7개팀, 청소년문화의집 소속 4개 팀이 최종 선정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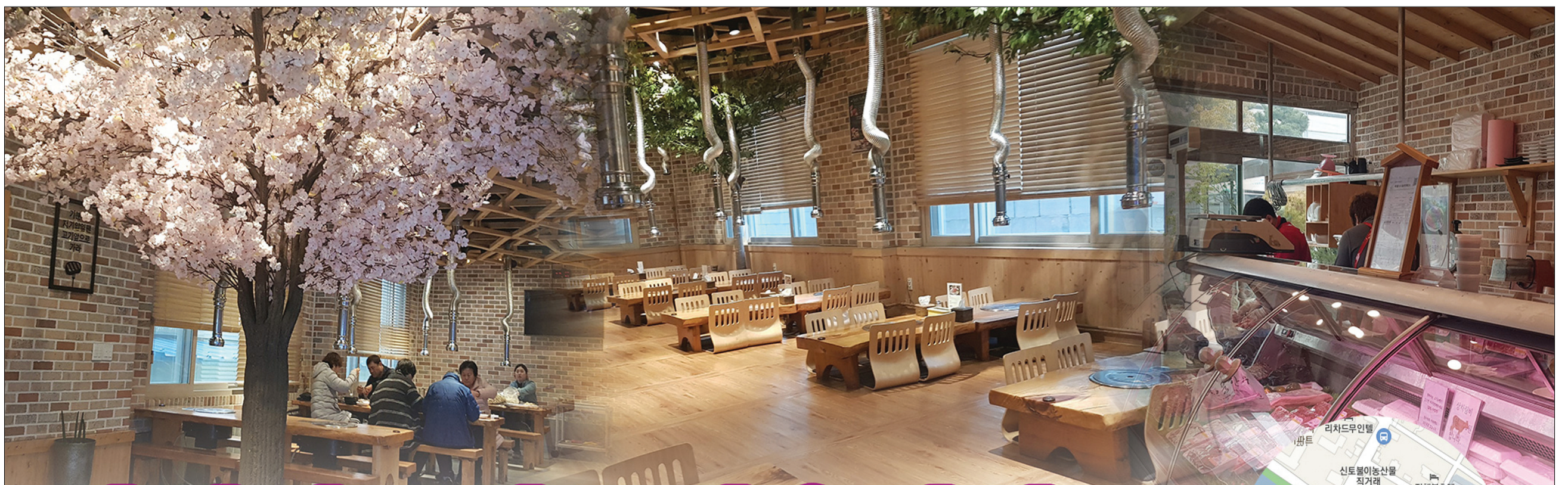
선정된 청소년 동아리는 연간 계획에 따라 자율적으로 동아리 활동을 펼치며, 7월 개최 예정인 청소년 어울림마당과 10월 청소년 동아리 축제 등에 참여하여 청소년이 주인공인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청소년 동아리 활동사업을 통해 청소년이 자립심과 협동심을 기르고 성취감을 느낌으로써 한층 더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흥군 관계자는 “올해 코로나19감염증으로 위축된 청소년 활동이 청소년 동아리 활동사업 추진으로 활기를 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청소년 동아리 활동사업 뿐만 아니라 군수 공약사항인 청소년문화의집 교육·문화 복합공간 조성과 청소년 안전망 확대 등 다양한 청소년 시책 추진으로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하겠다”고 밝혔다.

동부취재본부 정선웅 기자



장성진품한우식육식당

전남 장성군 장성읍 유탕리 1437-56 TEL : 061)394-0092

